

: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 >

글쓴이 : Bob DeFoor

Bob Duncan

Charles Glidewell

Tom Howe

Gary Long

Baptist Way Press®

,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 2013 BAPTISTWAY PRESS ®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BAPTISTWAY PRESS ®

, 1998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Publisher, BaptistWay Press®: Scott Stevens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ing consultant and editor: Ross West

가 , (1 10 ,)

(,)

가 , (11 13 ,)

(,)

: (,)

(Pat Ekern), BGCT ,

: 2013 8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학습공과)

4. 가

5. 가

6.

가(The Center for Informed Faith) 1-866-249-1799
baptistway@texasbaptists.org e-mail
(PDF) 가 6, 5
25 1-866-249-1799

() 1-866-249-1799
PDF 5 ,
20

www.baptistwaypress.org

학습 공과 저자들

Tom Howe, 1~3 과를 집필했다. 텍사스 Haltom 시, Birdville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Howe 박사는 East Texas Baptist University (B.S.) 를 졸업했으며, Samford University 에 있는 Beeson Divinity School 에서 신학석사를 마쳤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Bob DeFoor 켄터키 Harrodsburg 출신이며, 4~6 과를 썼다. DeFoor 박사는 켄터키와 조지아 주에 있는 침례교회들을 40 년 이상 목사로 섬겼으며 그 중에서 Harrodsburg 침례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28 년을 섬겼다. 그의 아내 Sandy 와 함께 둘 모두 Baylor University 졸업생이다.

Gary Long 7~9 과의 학습 공과와 인도자 지침서를 집필했다. Gary 는 메릴랜드 Gaithersburg 시의 제일침례교회를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이전에는 텍사스 Houston 시의 Willow Meadow 침례교회를 섬겼었다. 그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겼다.

Bob Duncan 10 과와 11 과를 집필했으며 텍사스와 알칸사스에 있는 세 개의 교회들에서 목사로 섬겼고, 그 후에는 32 년 동안 텍사스 Dallas 시에 있는 Baylor Health Care System 에서 교목으로 섬겼다. Duncan 박사와 그의 아내 Donna 는 텍사스 Garland 의 South Garland 침례교회 회원이다. Bob 은 알칸사스 Arkadelphia 시에 있는 Ouachita Baptist University 졸업생이며 Fort Worth 시에 있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Charles Glidewell 12 과, 13 과, 그리고 성탄절 과목 에 대한 학습 공과와 인도자 지침서를 집필했다. 그는 뉴햄프셔 New London 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텍사스 Abilene 시의 Logsdon Seminary 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페이지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2
학습 공과 저자들		5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소개		8
	수업일	
제 1 과	_____ 침례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 마가복음 1:1-11	10
제 2 과	_____ 베드로: 예수님이 틀린 것이라고 말함 마가복음 1:16-18; 8:27-33; 14:26-31, 66-72; 16:5-7	18
제 3 과	_____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먼저다 마가복음 1:19-20; 3:13-17; 10:35-45	25
제 4 과	_____ 레위: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 마가복음 2:13-17	32
제 5 과	_____ 고통받던 한 사람: 귀신들린 것으로부터 해방됨 마가복음 5:1-20	39
제 6 과	_____ 절망적이었던 두 사람: 예수께 의지하다 마가복음 5:22-43	45
제 7 과	_____ 고향 사람들: 고정관념에 갇히다 마가복음 6:1-6	52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학습공과)		6

제 8 과	_____	종교 지도자들: 전통에 묶이다 마가복음 7:1-23	59
제 9 과	_____	열두제자들: 이해하는데 둔함 마가복음 6:45-52; 8:1-21	67
제 10 과	_____	율법전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다 마가복음 12:28-34	74
제 11 과	_____	베다니 여인: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하기 마가복음 14:1-9	80
제 12 과	_____	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다 마가복음 14:10-11, 17-21, 41-50	88
제 13 과	_____	십자가와 무덤에 있던 여인: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다 마가복음 15:40—16:8	95
부록: 성탄절	_____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18-25	101

소개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마가복음에 대한 이번 연구를 접근한 방식:

우리는 마가복음 첫 구절부터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진실로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시며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 전체에 이 진리가 증폭되고 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언급할 내용이 있다. 마가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 –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눈 – 을 통해 그분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보게 한다. 마가복음의 그러한 국면은 이번 연구의 골격이다.

마가복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봄으로써 예수께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13 개의 과는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1:1)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에 대한 짧은 배경 설명:

마가복음은 처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하신 뒤 35 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되었다.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은 복음을 설교했고, 그리고 지금 마가는 수 십 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되어져 왔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주장하듯 베드로의 설교들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마가의 처음 독자들은 로마에서 60년대 중반기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 예비 신자들 역시도 예수께 그들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예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필요했다.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학습공과)

우리 시대에 예수께 반응하는 것: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계속되는 질문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해야 하는가? 16 개의 신속히 진행되는 장들 속에서 마가복음은 각 사람에게 결정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메시지는 또한 헌신 -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 이 진실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제공한다.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제 1 과	침례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	막 1:11
제 2 과	베드로: 예수님이 틀린 것이라고 말함	막 1:16-18; 8:27-33; 14:26-31, 66-72; 16:5-7
제 3 과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먼저다	막 1:19-20; 3:13-17; 10:35-45
제 4 과	레위: 소외 된 사람들을 환영하다	막 2:13-17
제 5 과	고통받던 한 사람: 귀신들린 것으로부터 해방됨	막 5:1-20
제 6 과	절망적이었던 두 사람: 예수께 의지하다	막 5:22-43
제 7 과	고향 사람들: 고정관념에 갇히다	막 6:1-6 17-21, 41-50
제 8 과	종교 지도자들: 전통에 묶이다	막 7:1-23
제 9 과	제자들: 이해하는데 둔함	막 6:45-52; 8:1-21
제 10 과	율법 전문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질문	막 12:28-34
제 11 과	베다니의 여인: 예수님을 지극히 존중함	막 14:1-9
제 12 과	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다	막 14:10-11; 17-21, 41-50
제 13 과	십자가와 무덤 앞의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섬김	막 15:40-16:8

마가복음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들: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Mark. Revised e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James A. Brooks. Mark.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ume 23.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1.

Sharyn Dowd. Reading Mark: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Gospel. Reading the New Testament Series. Macon, Georgi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2000.

David E. Garland.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Craig S. Keener.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William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Lloyd J. Ogilvie. Life Without Limits.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75.

PHEME PERKINS. "Mark."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VIII.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95.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ume I.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30.

[1]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가복음 1: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막 1:1-15; 6:14-29; 11:27-33</p>	<p>학습주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p> <p>학습목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 했는지 설명하고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인지 깨닫는다.</p>

들어가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그가 사는 세상을 준비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음의 시작 (1:1)

마가복음 1:1 은 실재로 이 책의 제목이지 단지 첫 구절이 아니다. 그 제목은 마가의 기록에 대한 네 가지 주제를 설정한다: (1) 복음; (2)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4) 이것은 단지 그 시작이다. 이 각 주제들을 고려하라.

(1) “복음: 은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진실로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은 아마도 처음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일 수 있다; 최소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임이 거의 확실하다.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이 거의 400 년 만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이 생생한 주제- 여기에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있다- 로 시작하는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 해보라. 이제 오늘날 온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기쁜 소식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기쁜 소식인 것이다.

(2)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한다. 구약은 메시아가 지상에 하나님의 역사(役事)의 결론이며 동시에 결론을 가져올 분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마가의 독자들은 처음 구절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께서 누구신지 각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였고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의 고백, 8:29), 그것도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했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죄인으로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3) 처음 구절에서 마가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진술한다. 마가는 또한 그가 기록한 복음서 전체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러는 것처럼 이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신다는 것을 여섯 번 (변화형태를 포함해서) 기록했다. 그 중에 단 한번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의 끝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옆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었다 (막 15:39).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1:11) 와 예수께서 산에서 변화하실 때 (9:7) 말씀하셨다 (1:11). 마귀가 또한 그것을 두 번 선언했다 (3:11; 5:7).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고발자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는 곳에서 물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셨다 (14:61-62).

(4)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라고 첫 구절을 시작했다. 이 구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날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마가는 그의 책 전체를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 적용은 복음이 마가복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 점은 오늘날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믿음의 첫 걸음을 뗀 후 계속되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 (1:2-3)

마가는 2~3 절에서 걸음으로 보기에는 이사야서만 인용한 것 같지만 사실 출애굽기 23:20, 말라기 3:1, 그리고 이사야 40:3 절을 섞어서 인용했다. 이는 오늘날의 접근 방식으로는 부적절 해 보이지만 마가 시대에는 평범한 것이었다. 그는 가장 큰 자료 - 이사야 - 를 제시했고 그것을 다른 것과 함께 섞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 대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 즉시 성경으로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연속되는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 믿음의 기초를 개인적인 경험이나, 대중 문화나, 혹은 현대의 윤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요한이 광야에서 그 설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대중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다. 왜 요한은 광야에 가서 설교를 했을까? 그 대답은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 장에서 발견된다. 이사야 첫 39 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40 장은 전환점을 이룬다. 그 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과,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고난 받는 종과 함께) 을 기록했다. 비록 이사야 40 장에서 언급된 광야는 물질적인 광야를 가리키는 것일 마가복음: 예수께 반응한 사람들 (학습공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는 (모세 시대처럼) 영적인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한 것은 또한 영적인 황무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침례 요한은 그들이 스스로 종교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상처받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어 나가셨다.

만일 요한과 예수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당원들, 옛세네파, 서기관, 등등)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온 것이라면, 오늘날 사역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영적인 황무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다 (1:4-8)

침례 요한은 당시에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승한 자이었다. 그의 옷과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케 한다 (왕하 1:8 을 보라). 그는 심지어 헤롯 왕의 면전에서 대범했다 (막 6:14-29). 그는 체포되었고, 결국 참수를 당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는 것을 알았다 (11:27-33).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1:4) 함으로써 청중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했다. 궁극적으로, 요한의 설교 요점은 여섯 가지였다: (1) 회개; (2) 자백; (3) 용서; (4) 침례; (5) 예수님께 초점; (6) 성령의 침례.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 크게 미안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각각은 회개의 일면이기는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참된 고백이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과가 아니다 --- 주님, 지금껏 제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돌아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쉽게 “잘못 했습니다” 하고 털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진정성과 진지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용서가 따른다.

요한의 나머지 세 가지 요점들은 서로 관련된 것들이다. 요한은 설교를 한 뒤에 침례를 행했다. 비록 침례는 구약 성경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뿌리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의식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출 19:10; 레 14—16; 민 19; 겔 36:25). 요한의 요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요한은 그의 침례를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때 요한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리켰다. 요한은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요한은 성령의 침례 또한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예수께서는 신자들을 보호 하시고, 인도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새 생명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셨다 (요 14:15-17, 25-26; 16:5-15).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다 (1:9-11)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뒤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보조했다. 이사야서 처음 39 장처럼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였다 (마 3:1-17; 눅 3:3-18, 21-23 을 보라).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마태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자기가 그럴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으나 예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 3:14-15)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해놓고 있다.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고, 공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지우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침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가복음 1:10-11 절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언급되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제공해준다.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은 땅 위에서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 위에 임하신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1:11)고 선언하셨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셨고, 이는 결국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1:1)이라고 부른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적용 및 실천

마가복음은 성경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증거하는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요한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영적인 황무지에서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안식과, 인도하심과, 해방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원주의적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박해도 따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임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경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질문

1. 마가복음 전체는 단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2. 당신은 요한과 예수님처럼 영적인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당신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4. 당신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가끔씩 구체적인 고백 없이 용서를 구하는가?
5. 당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누구를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고)

용서

당신은 고백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과 회개를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 경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용서해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우리가 알고 있으나 고백하지 않은 것들; (2) 고백했으나 회개 (행동의 변화)하지 않은 것들. (3)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2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마가복음 1:16-18; 8:27-33; 14:26-31, 66-72; 16:5-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마가복음 1:16-18, 29-31, 35-37; 3:13-16; 5:35-37; 8:27-33; 9:2-8; 11:20-25; 14:12-42, 53-72; 16:1-7</p>	<p>학습주제</p> <p>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께서 틀린 것이라고 한 번 이상 반대했다.</p> <p>탐구질문</p> <p>당신은 어떤 식으로 예수께서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가?</p> <p>학습목표</p> <p>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관계를 추적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한다.</p>

들어가기

베드로는 감히 예수께서 틀린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심지어 주님을 책망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떤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러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아무도 자기가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가 있는 같은 편이 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택 받기를 원하고 포함되기를 원한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았고 그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첫 열 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순종)을 통하여 선택하신다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시다 (1:16-18)

예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마가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그들이 반응한 속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복음서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해준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긴박한 것이었다 (눅 5:1-11; 요 1:35-42 을 보라; 또한 막 10:28 을 보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보고, 그리고 요한을 부르셨을 때 해변을 따라 걷고 계셨다. 마치 예수께서 멈추지 않고 갑자기 그들을 선택하시고 계신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들의 반응 역시 동일하게 빨랐고 즉각적이었다. 시몬 (곧 그는 막 3:13-16 절에서 베드로로 불린다)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1:18). 그물을 버려 두고 따랐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만큼 대가가 따랐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일반 어부로서 그들의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은 심각한 헌신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 즉시로 헌신했다.

마가복음은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확실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부르셨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따르도록 부탁하거나 간청하지 않았다. 때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한 서기관이 그를 따르기로 헌신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는 이때 대답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 8:19-20). 그는 또한 한 부자 관원에게도 말씀하셨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막 10:21).

예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긴박성과 심각성으로 오늘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당신의 반응은 베드로의 그것처럼 즉각적이고 희생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말해서 당신의 제자도는 당신의 필요들에 근거해서 조건적이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다 (8:27-33)

이 짧은 일곱 구절 안에 극적인 전환점이 있다. 처음 절반 부분인 27-29 절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 나머지 절반 부분인 30-33 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전환점은 베드로가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왔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다. 제자들은 그 소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이 예수께서 특별한 선지자,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그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좀더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언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다. 막 1:1 은 복음은 바로 이 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포함하고 있음을 선포한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아직까지 누구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8:29).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한 때로 시작하여 마가가 마가 복음서 전체에서 설치해 놓았던 그 대답을 제시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결론에 스스로 이르도록 허락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대답을 예수께 드렸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에게 즉시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세상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일반

대중의 그 반응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셨다. 제자들의 대답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옳았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올바르게 대답하셨다고 즉시 말씀 해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과 동시에 교만으로 가득 찼겠는가! 마침내 오래 동안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을 비밀로 하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다. 일단 예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알고 있음을 확인한 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밝히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절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펼쳐 놓으신 그 계획이 싫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것은 작은 말 다툼이 아니었다. “꾸짖다 (rebuke)” 는 언성을 높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 감정도 격해지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는 잠시 전에 기뻐했다가 이제는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어떤 제자들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8:33)는 강력한 말씀까지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심사숙고 하시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셨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께서 밝히신 계획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네 가지 이유로 매우 거칠게 반응하셨다: (1)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2)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에 있게 하셔서 진실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3)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4) 사탄의 일을 대적하시기 위해. 각각의 이유를 고려해보자.

(1) 예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셨다. 오늘날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계획과 갈망에 맞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2) 예수님의 “내 뒤로 물러가라”는 명령은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예수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을까? 마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 전체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제를 사용했다. 또한 마가복음 1:13 절에 기록된 공생애 직전의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사탄에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의 “뒤”로 서라는 명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방법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과 인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자주 반대하는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커다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득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고난이 따르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것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4) 예수께서는 둘 중의 하나, 혹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사탄의 일을 대적하고 계셨다: (a) 예수께서는 간접적으로 사탄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탄의 일을 대적하고 계셨다, (b)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전자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사탄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예수께 반박함 (14:26-31, 66-72)

베드로는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밤 또 다시 실수를 범했다.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셨다. 그 일은 몇 시간 후에 곧 펼쳐질 일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모두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의심한다고? 베드로는 또 다시 예수께서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느꼈다. 그는 아마도 정말 정직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역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고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표시로 새벽 닭이 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4:66-72 는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를 기록한다. 물론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 세 번째 부인을 하자 수탉이 두 번째 울었다. 애통 가운데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틀림 없이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 했던 그 끔찍한 밤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틀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틀린 사람은 자신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가?

예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가 제자이길 원하셨다 (16:5-7)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는 그의 주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던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를 위한 용서가 남아 있을까? 예수께서는 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 당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막 16:5-7 은 베드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두 개의 사건을 제공한다 -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베드로를 보기 원하신다. 베드로는 진실로 완전한 속죄를 경험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뺏치셨다.

적용 및 실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위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 봄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

질문

1.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2.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한 적이 있는가?
4. 예수님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인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언제든지 그 믿음에 헌신하겠는가?

(참고)

베드로

막 3:16 에서 예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에 대한 영어식 표기법이다. ‘바위’라는 뜻이다. 아람어로 하면 ‘게바’이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 역본과 더 친숙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평소에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이 아닌 아람어인 게바로 부르셨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과도, 베드로와도 함께 지냈던 사도 요한은 아람어 이름으로 먼저 부르고 헬라어로 어떻게 불렀는지 설명했다 (요 1:42). 바울 또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여덟 번 불렀는데, 이는 그 역시 베드로를 아람어로 불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고전 1:12; 3:21; 9:5; 15:5; 갈 1:18; 2:9).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을 받아 적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더 익숙하고 잘 알려진 헬라어 이름인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이다.

3	: 가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마가복음 1:19-20; 3:13-17; 10:35-45</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마가복음 1:16-20, 29; 3:13-17; 5:35-37; 9:2-8; 10:35-45; 14:32-42</p>	<p>학습주제</p> <p>야고보와 요한이 비록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했다.</p> <p>탐구질문</p> <p>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당신이 여전히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들이 있는가?</p> <p>학습목표</p> <p>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며 살 것인지 결정한다.</p>

들어가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두머리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자로 세우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으셨다.

내가 신임 목사가 되었을 때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에 매우 규칙적으로 참석 했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같은 종류의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주일학교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헌금이 늘고 있습니까? 작년에 침례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이 목사님들의 잘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질문들은 서로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한 사람은 달랐다: 제임스 목사였다. 그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항상 겸손했다. 나는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목사로서 완전히 헌신된 분이라는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에 나는 그 목사님의 두 명의 자제들이 몇 달 간격을 두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암으로 죽었고, 딸은 교통 사고로 죽었다. 그 일이 내가 그분을 알기 10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제임스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그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자세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사랑했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다 (1:19-20; 3:13-17)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막 1:19-20 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사업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들이 그물을 수선하다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멈추고 다 못한 그 일을 내 버려 두고 그 배 위에 있는 다른 고용인에게 갔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최초의 결정은 큰 값을 치르는 것이었다. 비록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따랐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일을 하는 소유주의 아들들이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따랐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다가 아버지, 그리고 그 유산까지 한 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전 지상 사역을 함께 하는 커다란 특권을 갖게 되었다.

보통 제자들은 어떤 랍비를 따를 것인지 결정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다. 예수님 주변에는 계속해서 수 십 명, 수 백 명, 수 천 명이 모여 들고 있었다. 하지만 마가복음 3:13-19 에서 예수께서는 수 많은 따르는 자들 가운데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돌려 보내시고 명 명만을 선택하셨다. 시몬, 야고보, 요한...한 명 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예수께서는 심지어 형제들에게 같은 별명을 붙여 주셨다, “우리의 아들들” (문자적으로 시끄러운 자들이라는 의미). 비록 이 별명은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지만 이 두 명이 목소리 큰 리더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열 두 명을 그의 “사도”로 임명하셨다, 이는 그들이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보내졌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3:14-15).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요한복음 6:44 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 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로도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10:35-41)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리를 원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로서 그의 역할을 드러내실 때 권세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요구가 오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몇 가지 의미가 겹쳐진 대답을 해주셨다.

(1)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 보다는 즉각적인 미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왕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건설된 이 땅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자주 너무나 야고보와 요한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생각이나 갈망들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왕국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2)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 하셨다. 첫째로, “잔”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잔”은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하심을 가리킨다. 하지만 주로 그 의미는 심판, 슬픔, 고난, 그리고 죽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당연히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비유를 사용 하셨다. 그는 또한 특별히 구원의 잔을 의미하기도 하셨다. 그는 며칠 뒤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3-24)고 말씀 하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마시게 하셨다. 비록 막 10:39 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이 잔을 나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10:45)이 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전 하셨다.

(3)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침례의 비유를 사용 하셔서 그분이 곧 받으셔야 할 엄청난 고통의 경험을 가리키셨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침례 의식이나 제자들의 침례 의식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두 번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다음 주에 그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겪게 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말씀 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 될 것이다.

(4) 예수님의 한계에 대한 표현은 (10:40) 예수님 자신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이심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누구를 그의 좌, 우편에 앉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 한 것은 다소 이상하게 들린다. 결국 마가의 요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은 예수님 자신의 왕국이다. 왜 예수께서 누구에게 좌, 우편의 자리를 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는 그분의 지상 통치 안에 있는 특권을 세 가지 이유로 제한시키셨다: (a) 이미 역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한 최고의 우선성과 섭리를 설립하시기 위해, (b) 하나님의 목적이 손상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c) 하나님의 계획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복종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고통의 시기에 들어가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10:42-45)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가 났다 (10:41).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교훈할 기회를 잡으셨다. 그는 정부의 통치자들을 비유로 들으셔서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가리키었다. 로마에 있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열 두 제자들이 들었을 때 놀랐던 것처럼 그들도 놀랐을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10:43)라고 언급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치한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셨던 것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이중적 계획을 말씀 하셨다. (1)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꼴찌가 되어야 한다. 종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이다. 집사라는 단어도 똑 같은 단어로 사용된다. 그것은 “종”이라는 의미 이상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지도력 안에 어떤 성직 제도나 계급 제도도 세우시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왕국 안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의 종이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계셨다. 사도들과 (그리고 마가의 독자들은)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2)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에 대한 가르치심을 더 하시면서 더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다. 만일 위대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종 (디아코노스)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욱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들의 노예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종이 어떤 권한, 특권, 혹은 기대가 있다면 노예는 그런 것들조차 전혀 없었다. 노예들은 고대 로마 세계에서 짐승 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여겨졌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권리들, 특권들, 혹은 기대들을 내려 놓고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대답을 하셨다.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교회, 혹은 사역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고인가?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적용 및 실천

우리는 권력, 명성, 권한, 그리고 통제가 세속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들이 세상 사업장의 마케팅 전략과 상표 전략을 그대로 끌어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때로 담임 목회자와 CEO 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정도다.

예수께서는 그의 첫 제자들에게 종들이라는 것을, 노예라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개인적인 명예와 자리에 대한 유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은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문

1.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있는가?
2. 당신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혼동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더 관심이 있었는가?
3. 예수님조차도 그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4. 당신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당신이 종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5. 당신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야고보나 요한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묘사할 수 있는가?

(참고)

침례

침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식이고 침례교 유산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35-45 에서 침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침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법령을 제정하시지 않았다. 사실 복음은 침례 의식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것이 없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침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복음서 어디에도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침례는 옛 사람의 죽음과 복종을 나타내는 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4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2:13-1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2:13-17</p>	<p>학습주제</p> <p>예수께서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와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로 간주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p> <p>탐구질문</p> <p>복음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p> <p>학습목표</p> <p>예수님에 대한 레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결정한다.</p>

들어가기

비록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받아들이심과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 주일 학교 선생님이 말했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말을 전에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이 말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 가운데도 좋은 점이 있고,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도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말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 가운데도 좋은 점이 있고,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도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의 선생님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다. 나는 그 말들을 수 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선(고정관념)을 넘어 밖으로 나아가기 (2:13-14)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넘기 어려운 분명한 선들이 그어 있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선들이 그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 속에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어 놓은 수 많은 선들, 즉 규율들과 전통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막 1:16-20). 그는 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또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 가운데 각 개인들을 돌아보셨다.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해준다, 예수께서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번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레위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레위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간단했다. 아마도 다섯 명 각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말들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장려금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묶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작은 책상, 혹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대리하여 세금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저녁에 가버나움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시끄러웠음에 틀림이 없다.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도 당시의 기준이나 통례로 볼 때 놀라운 일이었지만 세리를 제자로 택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리들이 유대 사회의 인간 쓰레기처럼 간주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보셨던 것을 주목하라: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종종 각 개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심지어 서로 간에도 알지 못하는 관계가 대부분인데, 예수께서는 레위를 보셨다. 아마도 당신은 가게를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아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마태복음 25:31-46 에 나오는 소경의 영원한 결말을 읽어보라.

예수님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단순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도 당신은 어렸을 때 리더를 따라서 하는 놀이를 해봤을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처음 네 명의 제자들보다 더 힘든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레위는 한 번 떠나면 다시 그의 “세리” 직업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레위는 극적인 발을 내 디뎠다. 그는 예수님 뒤에 섰다. 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특권을 가지게 되겠지만, 먼저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축하 잔치를 벌였다.

저녁 식사 전도(2:15)

레위의 전도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파티를 열었다. 레위는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른 “세리 및 죄인들” 이었을 것이다. 1 세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소외되었으므로, 레위에게 남아 있는 친구라곤 그들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명백하게 어떤 이들은 이미 만났었을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디 좀 편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자 하고 말하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가져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경우 그것은 잘 통한다, 하지만 종종 그런 대화는 자유롭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흐르지 못한다. 저녁 식사를 즐거운 일들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놓치지 마라. 침례 의식이나 다른 영적인 일들을 식탁 주변에서 축하라, 그리고 침례나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라. 또한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들이 당신 예배당의 의자에 편히 앉기 전에 그들은 당신의 식탁 주변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알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의 목사님을 초대하는 것도 생각해보라; 나의 생각에 당신 목사님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실 때가 있다!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라고 묻다 (2:16)

마가복음 2 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왜”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후 종교 지도자들은 물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막 2:7). 비록 그들이 예수께서 한 중풍 환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겼지만, 예수께서 그 남자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이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 (막 2:12) 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놀랐다.

레위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은 열 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물으면서 말이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막 2:16).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지 (막 2:18), 그리고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따 먹음으로써 안식일 법을 어겼는지 설명해주기를 원했다 (2:24).

그들은 그들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그들이 그어 놓은 선(線)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으로 생각했다. 비평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들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중간기에 소위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부류이다. 그들의 애국주의와 영적 헌신은 핍박의 시기 동안에 유대 사상을 존속 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정해놓은 방법들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적들이 아니었다. 그는 레위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다. 그들도 역시 “죄인들” 이었고 (비록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필요했다. 올바른 종교인들도 역시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최악의 죄인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이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다.

소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 여기에 어울릴 것이다 (눅 15:1-2, 11-32). 종교적인 사람들, 비종교적인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여 - 물론 당신과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자를 고치심 (2:17)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병든 여인, 귀머거리, 병어리, 소경, 한 소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7 절에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그의 영적 사역을 설명하시는 비유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물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2:16). 예수께서는 의사와 병자의 관계로 대답하셨다. 의사의 관심은 병자가 어디 있는가? 이다. 의사가 방으로 들어갈 때의 관심은 병든 사람에게 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바로 왜 그가 여기에 있는지, 즉 죄인들에게 온전함과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구세주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출생에 근거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분화 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봉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레위(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다. 진리를 말하자면 그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들이 병자였던 것처럼 역시 병자였다. 둘 모두 죄인들이었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그 필요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의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는 누구도 당신을 영적 의사에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것은 선택이다.

적용 및 실천

초대 교회가 씨름을 하고 있었던 두 개의 질문은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들에서 발견된다: (1)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2) 구원 받은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사도행전 10 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이나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사실 그것들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존재한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리더가 되도록 레위를 선택하신 것은 구원과 교제 둘 모두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질문

1. 왜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2. 당신의 교회, 혹은 당신 교회의 소그룹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3. 만일 당신의 반이 가장 환영 받는 그리고 외부인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할 세 사람을 꼽으라면 당신의 이름은 그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4. 만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정의 하는데 사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 제사장에 대한 라틴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합성어이다. 당신은 그 단어에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성탄절 이야기 속의 소외된 자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하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다. 비록 마태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 청중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마태도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지상(地上) 부모가 되게 하셨다 (마 1:18-25).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처음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히 먼 곳에서 많은 여행 경비를 들여서 온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 박사 (마 2:1-11)이라고 부른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천민 계층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최초로 들었다 (눅 2:1-20).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 1:11).

선 긋기

1 세기 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그 사회에서 멸시 받던 사람들을 제자들의 서클 안으로 영입한 분이셨다. 이는 세리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더욱 부각되었다. 후에 또 한 명의 세리인 삭게오 (눅 19:1-10)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주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배격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1 세기의 동료 제자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21 세기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선을 긋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그렇게 하는가?

5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5:1-2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5:1-20</p>	<p>학습주제</p> <p>예수께서는 귀신 들려 통제할 수 없었던 한 남자를 고치셨고 그 남자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도록 집에 돌려 보내셨다.</p> <p>탐구질문</p> <p>예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필요가 있는가?</p> <p>학습목표</p> <p>예수께서 고통 받던 한 남자에게 주신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할 필요가 있는지 깨닫는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하신 일을 말하는 사명을 위해 보내 셧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가? 아마 당신은 나와 같을지 모른다 - 나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적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나의 삶은 오늘우리 교회 같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 교회와 연결되어 살아 왔다. 열 살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 첫째로, 나는 교회에 더 이상 즐기 않았다. 둘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린 남자는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변화보다 훨씬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과의 경험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다 (행 9:1-8).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5:1)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었다. 갈릴리 바다는 디베료 바다라고도 불렸다. 거라사는 데가볼리로 알려진 지역에 속했다.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열 개 동맹 도시였다. 그 도시들 중의 어떤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까지 추급해 올라간다 (기원전 4 세기), 그리고 다마스쿠스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근대 요르단 지역 안에 있다. 로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전의 수업의 내용을 강화시켜 주는 요점인 “레위: 소외된 자들이 환영받다” 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대인 영역을 가셨고, 고침을 받았던 그 남자는 생명을 바꾸시는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마태는 데가볼리 출신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마 4:25)을 기록했고 마가는 예수께서 그 지역을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 하셨다는 것을 기록했다 (막 7:31).

가이사라의 미친 사람 (5:2-10)

예수께서 가이사라의 해안을 걸으시다가 복음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남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까, 아니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무섭게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을까? 그 대답과 상관 없이 예수께서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힘과 통제성이 없는 한 남자와 맞닥뜨리셨다. 어떤 사슬이나 밧줄로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밤 낮으로 악몽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 보았고 절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 왔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상황에 현대적 사상을 부과하기를 원한다. 불가능할 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대 세상에 살고 있던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안다.

마가복음 5:7-10 은 이해하는데 혼동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남자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7 절에서 그 남자가 말하는 것을 읽어볼 때 어쩌면 예수께서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에 왔을 수도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어쩌면 그것은 단지 그 남자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 마가는 8 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남자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그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 9 절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인냐고 물으셨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은 예수님께 청하였다. 그 나라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그 근처에 있었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귀신이 그 남자의 정체성을 빼앗은 것이든, 목소리를 빼앗은 것이든 예수께서는 귀신을 압제하는 능력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신분과 목적을 드러내셨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강조하는 하나의 커다란 패턴의 부분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적적인 치유들,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다른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과 같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의 권능 (막 4:35-41)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막 1:1)로서의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돼지 떼가 몰살 된 문제는 어떤가? 그 이야기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그 남자를 위해 이제는 그가 완전히 치유 되었으며 더

이상 귀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확신 시켜 주는 한 방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남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의 인생을 망쳤던 그것이 이제는 바다 속으로 던져졌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잔인한 것이었다고 비판을 한다, 하지만 요점은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가 제 정신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삶의 목적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때 (5:14-17)

바다에 2000 마리의 돼지들이 빠진 사건은 크게 사람들을 동요시켰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왔고, 그들이 본 것은 큰 염려를 불러 일으켰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눅 8:35)을 추가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바뀐 태도를 보지 않았다, 어쩌면 계속해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한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그 남자가 비정상적이었을 때 그 괴력 앞에서 두려워 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더욱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진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0 마리의 돼지는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만일 이 예수가 계속해서 이 주변에 머문다면, 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간섭을 할 것인가? 그들은 그 불쌍한 남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예수가 그 지역에 끼칠지도 모를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과 돈의 중요성에 사로잡혀 있다.

건강한 사람 (5:18-20)

예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셨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시고 있었을 때에 그 고침을 받은 남자는 예수께 자기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좋은 전과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족에게 가서 보여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였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가볼리 지역 최초의 선교사는 귀신 들렸었던 그 남자였다. 가서 전하라(말하라)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명령어이다. 우리는 이 남자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고치셨고 장래에 대한 목적을 그에게 주셨다. 그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셔서 사역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질문

1.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2. 당신은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물질이나 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3. 당신은 왜 그 돼지 떼를 쳤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 그렇게 반응했었다고 생각하는가?
4.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5:7) 에 대한 질문을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참고)

귀신론

성경은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구원받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혼을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공중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단 말인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혼들은 결코 풀려나 떠돌아다닐 수 없다. 심지어 낙원으로 간 사람의 혼들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각종 TV 에서 방영하는 빙의현상이나 최면술사들이 연출하는 것들은 마귀들(악한 영들)이 가장해서 속이는 것이지 실제로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니다. 성경에는 마귀(Devil 또는 Satan)와 마귀들(devils)이 있는데 마귀, 즉 사탄의 줄개인 마귀들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방식과 배경을 알고 미래를 점쳐 주면서 그것을 미끼로 경배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족집게 점쟁이라는 사람들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것이다(행 16:16).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자손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 기간에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속에 들어 있는 마귀를 향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 마귀를 엄히 꾸짖어 쫓아내기도 하셨다. 당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이 어느 때 죽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군대"라고 대답했다(막 5:9).

마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둑인데,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 주셨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지 귀신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이를 모르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교회를 세워 무당의 푸닥거리를 흥내 내고 있는 것이다.

6	:
<p>핵심본문 막 5:22-43</p> <p>배경 막 5:22-43</p>	<p>학습주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야이로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의술을 의지했지만 지병을 고칠 수 없었던 한 여인은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께 의지함으로 고침을 받았다.</p> <p>탐구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p> <p>학습목표 야이로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여인 모두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도움이란 무엇인지 드러낸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사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진술한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깊은 필요를 보셨고 두 사람 모두 예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께 찾아왔다. 비록 우리의 필요들이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들을 충족시키실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커다란 필요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룬다 – 진정한 필요들,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도움을 원했고, 도움이 필요했다. 한 가족이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위해 그들의 마지막 소망을 예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 보았다. 또 다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고치려다가 병은 악화되고 재산은 탕진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낫고 싶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거나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과 권위를 드러내시기는 했지만 말이다.

야이로의 믿음 (5:22-24)

예수께서는 그가 사셨던 사회의 모든 영역에 두루 걸쳐서 사역하셨다. 그는 데가볼리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국제적인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을 전도하셨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도 만나셨다. 이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야이로였는 시민들 가운데서 뽑힌 회당 지도자였다.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관할하였다. 그것 자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동료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예수께 겸손하게 나아왔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야이로는 절망적이었고 그녀의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고 야이로는 예수께서 그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큰 믿음으로 간구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막 5:23). 당신은 아마도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의료적 도움을 구한다. 이 이야기 속의 야이로는 아마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을 것이고 큰 낙심과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갔고 큰 무리도 역시 따라갔다.

한 절망적인 여인의 믿음 (5:25-34)

우리 인생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들 중의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행할 때 일어난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달력에 모든 계획을 기록해 놓고, 모든 것을 아주 적절하게 짜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그 모든 계획들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이 결코 달갑지는 않지만, 종종 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갑작스런 일들이 가장 풍성한 순간들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한 소녀를 고치시기 위해 야이로와 함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일이 일어났다.

군중은 많았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이나 겪고 있었다.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그녀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였다 (레위기 15:25 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피해야 했다. 만일 그녀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면 그녀의 상태는 더욱 비참해진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쏟아 부었다, 하지만 병이 낫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야이로처럼 그녀는 예수께서 그녀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막 5:28). 놀랍게도 그녀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낳았다. 즉시로 그녀는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다. 그는 물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5:30). 예수께서는 진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이셨다. 그는 모르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신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을 잘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하찮은 일보다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가 그를 만졌는지 군중들 가운데서 찾고 계셨다.

그 여인은 군중 속으로 슬쩍 숨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찾고 계셨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예수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을 꾸짖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5:33). 예수께서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5:3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로 축복하셨다, “평안히 가라.” 그녀는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해주셨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녀가 나은 것은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믿음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34). 하지만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22 을 보라).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뒤에, 그녀는 예수님을 찾았다. 그녀는 예수께서 그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병이 낫도록 자신을 내어 드렸고, 그녀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겼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옷 자락을 만졌다. 이런 것들이 모두 믿음의 중요한 국면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당신을 내어 놓는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 그것은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간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에 의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큰 걸음을 내 디딘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매직 버튼을 눌러서 낫게 한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그녀를 낫게 한 과정의 한 부분이였다. 예수님을 의지한 그녀의 믿음이 열쇠였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정서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그녀는 이제 병이 나았고 평화를 얻었다.

야이로의 딸은? (5:35-43)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시는 중에 그녀와 상대하시기 위해 잠시 멈추셔야 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다.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그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온 자는 야이로에게 이미 늦었으니 예수님을 더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36).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전에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 (4:35-41). 그때에 그들은 놀라며 서로 물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41). 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들을 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들은 열 두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 리더들이었다. 곡하는 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그들은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 보내시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들만 방 안에 있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 하셨다, “일어나라!” (5:41). 그 소녀는 즉시로 “일어나서 걸으니” (5:42),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기적적인 일들만 쫓아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부모에게 소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소녀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 주셨고 이제 부모가 그 소녀를 돌보는 책임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요청 받았고 그것을 채우셨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그의 권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깨닫는 일에 계속해서 더해졌다.

그 소녀의 호흡 속에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있었던 그녀 아버지의 믿음이었다. 야이로의 믿음과 12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비슷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열망들과 필요들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믿었다. 야이로는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와 상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 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5:36)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슬펐겠지만 여전히 믿음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의 집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그 소녀는 죽었는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종종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0; 또한 요한복음 11:11-14 을 보라).

예수께서는 그 소녀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들 눈에는 소녀가 죽은 것 같겠지만 나는 깊은 잠 (혼수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사람을 살려 낼 수 있다 고 말씀하신 것일 수는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간에 - 그리고 예수께서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하실 수 있다 -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소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셔서 그녀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야이로가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눅 8:55 을 보라, "그 영이 돌아와...")

적용 및 실천

우리는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중재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삼상 12:23 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직접 병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지만, 오늘날은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할 때 2000 년 전 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나는 믿음과 치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소위 믿음 치유 사역자들은 의심스럽다. 기도와 고난과 병고침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합적인 한 덩어리고 간단한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 기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도움을 주고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롬 8:28 을 보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혼동이 무엇이든 간에 특히 상황들이 절박하고 절망적일 때 우리는 혼자서 그런 인생의 고된 문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항상 보시고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마 28:20, 시 23:4, 6).

질문

1. 당신의 믿음은 야이로와 비교해서 볼 때 어떠한가?
2. 어떤 나쁜 일을 겪은 후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묻는가? “왜 나에게?” 그들은 이렇게 물을 수 없을까? “왜 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3.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복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가?
4.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본 적이 있는가?
5. 당신은 야이로와 그 이름 없는 여인처럼 기꺼이 당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참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것, 혹은 곡하는 것은 1 세기 유대 사상 안에 만연되어 있었다. 죽음이 오면, 그 초점은 죽음의 종결성에 있었다. 크게 우는 것이 시작되었고 무덤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했다. 사람들은 깨어진 마음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었고 한 달 정도 그 찢어진 옷을 입었다. 곡하는 자들은 음식과 옷을 절제해서 입었고 많은 활동들을 자중했다.

곡하는 자들 가운데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는 친척들의 슬픔을 크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미 야이로의 집에 이미 모여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보통 24 시간 안에 매장하였지만 그 슬픔의 소리는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생명이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계 21:1-4).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슬퍼할 수 있지만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는 다른 것이다 (살전 4:13).

7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6:1-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6:1-6</p>	<p>학습주제</p> <p>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고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기꺼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복을 받지 못했다.</p> <p>탐구질문</p> <p>믿음이 당신을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할 때 어떤 식으로 당신은 일상에 경직되는가?</p> <p>학습목표</p> <p>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정한다.</p>

들어가기

잘 아는 관계는 무시를 낳는다. 잘 아는 관계가 또한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할 때 있었던 부분이다.

어떤 편안함은 일들이 익숙할 때 온다. 그러한 친숙함이 갑자기 역행될 때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슬픔으로 맞이한다. 이번 과에서 친숙함이 주요 역할을 한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친숙함이 어른이 된 예수를 대할 때 매우 거북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배운다. 이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깜짝 놀람 (6:1-2a)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의 고향에 오셨다. 막 1:9 과 1:24 는 우리는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가복음 5 장에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6 장에서 공부한 마가복음 5 장에서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께 찾아왔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 이르셨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시기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서 그들이 구했던 기적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버릇 없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향으로 오신 뒤 첫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회당에 가셨다.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반응했던 종류의 “놀람”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의 놀람은 회의적인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확인하게 된다.

의혹 많은 질문들 (6:2b-4)

2-3 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은 뒤 그 군중들이 던졌던 몇 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날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의 권능과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쪽으로 그들을 화가 나게 했다. 그들의 질문들은 놀라운 것이다.

그 질문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질문 했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이냐는 것 때문이다.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때까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다. 이 질문들은 정보나 통찰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가시 섞인 말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한 목수의 아들로써 그리고 예수 자신도 그런 직업을 가진 자로서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사회 계층 안에서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가르침과 권위는 크게 흔들리곤 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장했고 바뀌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그 달라짐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첫째 질문,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께서 히브리 성경에 대한 주석을 해주셨거나 랍비처럼 무엇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질문은 그의 지식에 대한 놀라움으로 던져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질문 어조는 의심에 찬 것이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볼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존재로서 있었던 것이다. 이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운 선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예수로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마음이 없었다. 그들의 귀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들을 수 없도록 스스로 닫다 놓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저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평범한 동네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셨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지혜”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목수가 장인(匠人)이었지만, 목수라는 것은 비천한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말이다.

예수님이 끌을 들고 훈련 하셨던 것이 선생으로, 병 고치는 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마가가 이 것을 기록할 때 끌을 들고 훈련 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이라는 표현을 절묘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마지막 질문은 유대인의 가십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버릇이었던 것처럼 들린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즉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관련 시켜서 말하였다. 이 것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첫째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모욕이었을 수도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글쎄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이 지혜는 누군지 모르는 그 아버지 쪽에서 왔나 보지.
- (2) 혹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과부로 사는 마리아의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만일 그가 정말로 그의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집에 남아 목수로 열심히 일해서 그의 가족을 돌보았을 거야.
- (3) 세 번째로 그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의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형제들과 한 가족인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오, 너 마리아의 자식들을 알잖아. 정말 보잘것없는 가족이지. 그 가족에게서 좋은 인물이 나올 수는 없지!

“ 달린 마음 ” 이란 무엇과 같은가 (6:5-6)

5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본질적으로 예수께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틀림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았는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역시 반응하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기적적인 특성에 그와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가능성에 힌트가 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놀라움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신 예수님의 놀라움으로 옮겨진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한 소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실재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으려고 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꽂 갇혀 있었다!

적용 및 실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단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만다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새로운 전선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신호를 보내시고자 하는 더 큰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질문

1. 이 만남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로 비쳐졌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평범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가?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방법들은 무엇인가?
2. 그 사람들은 예수께 화를 냈다 (막 6:3). 당신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를 내는가? 당신은 어떤 식으로 화를 내는가?
3. 당신은 어떤 식으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딱 갇혀 있는가? 당신의 믿음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4. 당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이야기? 아가서, 혹은 잠언의 말씀?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5. 마가복음 6:5 은 예수께서 몇 사람을 고치신 것 외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드러남이 사람들의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나타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참고)

살아있는 믿음의 점검표

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친숙함의 함정을 피하고 당신의 믿음을 활력 있게 하라.

- * 익숙한 성경구절들을 당신에게 새로운 사상, 말씀들, 혹은 구절들을 찾으며 주의 깊게 읽어라.
- *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변화를 주라. 만일 침묵으로 기도한다면 소리 내서 기도하라. 만일 소리 내서 기도한다면 침묵으로 기도하라.
- * 성경의 새로운 구절을 암송하라.
- * 매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 *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나 교회 노래의 가사와 곡조를 배워라.
- * 옛날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해서 그의 / 그녀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물어라.
진지하게 들어라.
- * 다른 사람과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해서 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라.
- * 읽어보지 못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라.
- *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 * 24 시간 동안 금식하라.

8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7:1-2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7:1-23</p>	<p>학습주제</p> <p>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올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만을 지키려는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p> <p>탐구질문</p> <p>어떤 전통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서 사는데 방해를 하는가?</p> <p>학습목표</p> <p>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외적인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관계에 뿌리를 둔 것인지 평가한다.</p>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신혼 부부 이야기다. 신랑이 신부가 햄의 한 쪽 끝을 잘라서 오븐에 넣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왜 햄 끝을 잘라서 넣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지만, 왜?”

“뭐.. 그게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요리를 하셨거든?”

신랑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 대답은 신부와 똑 같은 식으로 돌아왔다, “아, 그거.. 우리 어머니께서 햄을 오븐에 구우실 때 마다 그렇게 하셨거든..”

신랑은 더욱 궁금해져서 장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리고 비로서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할머니가 사용하던 오븐이 작아서 햄 한쪽 끝을 잘라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딸과, 손녀는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오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전통에 얽매어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혹은 전통에 묶여서 의미 없이 똑 같이 따라 하는 것이 없는가?

마가복음 7:1-23 절을 읽으면서 종교적인 관습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외적인 전통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관계에 뿌리를 둔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찰력을 구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관습 (7:1-5)

막 6:7-56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침례 요한이 참수(斬首) 됨; 예수께서 5000 명을 먹이심;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심. 9 과는 다시 막 6:45-52 절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둔하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래서 제 8 과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속박했던 전통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의 부분으로서 따라야 할 많은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 의식의 목적 위에 그 의식 자체를 놓고 유지시키려는 것을 책망하셨다.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엄했던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쉽다. 위선은 그들의 믿음을 쉽게 설명해주는 단어이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종교를 추구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다. 규칙과 안정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들의 의식들을 계명에 근거한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조직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따라 갈 수 있는 삶의 규칙을 만들어 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의식들은 유대 백성들이 외세 침략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나 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의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던 반면, 어떤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전통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마가는 그의 청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4 절에서 하나의 속담을 사용했다. 이 예는 마가의 목적과 그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해 준다. 첫째, 그것은 마가가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어떤 청중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초대 교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는 표시이다. 그들은 이 특별한 의식들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설명이 그 자리에 놓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이 예는 마가가 이 대면(對面)의 내적 의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가리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는 정결의 의식에 대한 무대로 우리를 집어 넣음으로써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전통이나 의식을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다른 점을 명확하게 보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왜 그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들을 준수하지 않는냐는 질문을 했었던 것이다. 대답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선지자 전통과 토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에게 항의하다 (7:6-8)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상기 시키시면서 예수께서는 위선의 죄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29:11 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진정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사랑하시지 입술과 공허한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의 의식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적 전통을 사용 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인간적인 전통이 선지자들에 의해 제공된 안내를 받기 위해 뒤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율법의 문자가 어떤 사람의 죄를 어떻게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주느냐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치(7:9-13)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고 강하게 몰아 치셨다. 그는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명령 했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종교적 관습을 노부모를 공양하는 일을 피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꾸짖으셨다.

"고르반"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혹은 절하는 것을 의미했던 히브리 단어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봉헌을 위해서 돈이나 제물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리고 그 봉헌은 그들의 노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을 비난 하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로 끌어 올려 놓았는지 또 한번 설명 하셨다.

듣고 이해하라 (7:14-23)

마가 복음 7:14 로 옮기면서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바뀐 것을 주목한다. 예수께서는 가까이에서 구경하는 자들에게 주목하셨다 ("군중"). 이전의 구절들에서 그의 요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17 절은 또 한번의 청중 변화가 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뒤에 오직 그의 제자들과만 함께 계셨다. 그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은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7:18). 당신은 이해 했는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구분 지으신 것 때문에 혼동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동안 배워오고 지켜왔던 기본적 종교적 관습들을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 절에서 마가는 그의 청중에게 또 다른 속담을 말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고 하셨던 것이다. 이는 단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고, 마가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속담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진실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의 깊은 분별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 누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갈 것인가.

적용 및 실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관습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과 상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7:21b-22)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의해 명령되지 않은 종교적 관습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위선이 없는지 규칙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인들은 성경에 명시 되지 않은 열매 없는 관습들, 공허한 의식들을 거부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는 말은 어쩌면 현상을 안일하게 유지하려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가장 위험한 말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질문

1. 기술된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것이 더 쉬운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가? 왜 그런가? 무엇이 다른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형식적인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위반되는 것인가?
3. 예수께서는 막 7:6, 19, 21 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마음," 혹은 "마음들"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셨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4.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들과 행동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당신 교회의 어떤 의식들과 관습들이 당신을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혹은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가?

(참고)

예배 드릴 때 아기가 우는 것, 모자를 쓰는 것, 그리고 구슬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 연구

옛날에 한 예배 장소가 항상 방해로 받는 한 교회가 있었다. 아래가 젖은 한 아기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주일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

그 다음 주일 교인들은 한 소년이 교회에서 모자를 쓴 것 때문에 방해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는 결코 전에 교회 온 적이 없었고, 단지 교회의 한 예쁜 여자 아이가 그 소년을 초청했다는 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달 세 번째 주일, 예배당 뒤쪽에 있었던 한 아이가 설교 중에 구슬 바구니를 쏟고 말았다. 각 구슬들은 나무로 된 마루 위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굴러 내렸고 그 목사의 매우 중요한 설교 부분을 들을 수 없게 했다.

6 주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 예배가 방해되었다. 드디어 한 집사가 사무총회를 하는 가운데 의미를 모르는 미소를 지으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일어났다.

당신은 그 집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외적인 전통인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인가 ?

다음 진술문들을 읽고 '전통' 혹은 '관계'로 써라

_____ 1. 한 남자 성도가 거리에 있는 한 노숙인에게 아침을 사주다가 주일 아침 성경공부에 늦었다.

_____ 2. 한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만 혼외 정사에 빠졌다.

_____ 3. 한 청소년이 여름에 아르바이트 한 수입에서 십일조를 드렸다.

_____ 4. 한 여자 성도가 매 주일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_____ 5. 부역 살림을 맡는 책임자가 항상 깨끗하게 부역을 유지한다, 하지만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부역을 빌려주는 것에 화가 나서 늘 하던 대로 깨끗하게 해 놓지 않았다.

_____ 6. 한 유쓰 지도자가 교회의 관점이나 의식들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말 것을 요청한다.

9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마가복음 6:45-52; 8:1-2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마가복음 4:35-41; 6:6b-13, 30-52; 8:1-21</p>	<p>학습주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모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열 두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다.</p> <p>탐구질문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께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추적하고 나 자신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분별한다.</p>

들어가기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오 천 명을 먹이셨을 때 함께 있었다. 그들은 다른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의심할 것 없이 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해하는데 매우 더디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른가?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구절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마가복음 6 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 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보내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막 6:6b-1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회개를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다. 그들은 사역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오 천명을 먹이신 자리에 함께 있었고 목격했을 때 분명해졌다 (6:30-4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배고픈 청중들의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기회를 주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6:37). 그는 그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장면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 장면들이 오늘의 핵심 구절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물 옆을 걸으셨는가? (6:45-52)

예수께서 청중들을 먹이었던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제자들을 베데스다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 그는 시간을 내어 산으로 가서서 기도를 했다. 그가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강한 바람에 시달리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만난 것은 한 밤중이었다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

예수께서는 배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물 위를 걷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들이 “유령”(6:49)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파도가 잠잠해 질 때까지 공포에 젖어 있었다.

51 절은 “마음에 심히 놀라니”(6:51) 이라고 진술한다. 이 말은 그들이 5000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 (52 절)다는 사실이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특별한 본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세상 속으로 찢고 들어왔다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그들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덩어리로 오 천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예수께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 만일 거기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깨닫는데 둔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놀라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는 일에 실패했었던 것에 대해 기록한 마가복음 6 장을 다룬 제 7 과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7 장에 대한 8 과를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라.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4000 명을 위한 점심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8:1-10)

마가복음 8:1-10 절과 6:30-44 절의 사건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지만 마가복음 8:1-10 절은 유대인들이 청중으로 나오고 8:1-10 은 이방인들이 청중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7:24-30 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의 대화가 있다. 그년 예수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비록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능히 그녀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확신하였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유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3 일을 가르치고 계셨었다 (8:2),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위해 무엇인가 하라고 지시하셨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집단적으로 미련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8:4).

또 다시 예수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적인 권능을 사용하셨다. 그 식사는 풍성했고, 먹고 남음이 있었다. 수 천명을 먹이셨던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6:30-44 을 보라).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깨닫는데 둔했는지를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에 놓여진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표적을 보여 주시오! (8:11-13)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다가와서 예수께 요청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8:11)을 구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8:12). 그들은 영적인 입증, 예수의 신적 연관성에 대한 진실 여부를 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을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6:5-6),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주실 수 없었다. 한 편으로 이것은 기적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똑같이 꽉 막혔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의하라! (8:14-21)

한 번 더 마가는 바다 위에 있는 배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직 빵 한 조각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 누룩은 부패를 일으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이었다. 누룩이 부패를 일으키고 그것을 확산 시키는 것과 연관 시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이 답답한 제자들은 그 의미를 놓쳤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행을 하는데 빵을 준비하지 않은 채 배를 탄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들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영적 위험에 주목시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들의 꽉 막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답답해 하시는 느낌이 묻어난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음식에 대해 육적인 음식으로 혼동하는 제자들을 보고 답답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8:18-20).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정말로 답답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은 그들을 부끄럽게 했음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마가는 심지어 예수께서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으로 대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 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고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결과이다.

적용 및 실천

때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세상을 찢고 들어오시는 방법들을 놓치고

만다. 때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다.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질문

1. 이번 과는 마가복음에서 네 개의 장면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각각의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 평범한 시각 속에 숨겨져 있는가?
 - (1)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 (2) 예수께서 사 천명을 먹이셨다.
 - (3)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날카로운 대립 각을 세우셨다.
 - (4)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위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2.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 오셨을 때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당신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두려워 하는가?
3.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같은가? 또한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4.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배고픈 4000 명을 위해서 무엇인가하기를 기대 하셨다. 본질적으로 그는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당신이 일하도록 부르시는가?
5.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표적" (8:11)을 구할 때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6. 제자들은 정말로 배 위에 오를 때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더 자세한 조사와 더 주의 깊은 분별을 요구하는가?

[참고]

하나님을 보는 것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놓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본다.

- * 자연계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그리고 위험한 폭풍 등을 생각해보라.
- * 당신의 가까운 가족들의 말들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주목하라. 그들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관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 *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누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노숙자들을 돕고, 교회 버스를 몰고, 혹은 아기들을 돌보는가?
- * 24 시간 동안 당신의 현대 문명 기기들을, 이메일, 스마트 폰,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그리고 다른 신문 등과 멀리하며 지내라.

10	가: 가 가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12:28-3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11:27— 12:34</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장에 있다고 가르치셨다.</p> <p>탐구질문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p> <p>학습목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의 삶을 측정한다</p>

들어가기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1:27 절에서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뒤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깎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시는 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질문들을 던졌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12:28-30)

마가복음 12:28 절에서 질문을 한 사람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보수적 무리에 속했던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좀더 자유주의적 무리에 속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잘 대답”을 한 것으로 인정했었을 것이다. 그는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율법사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첫째는 한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에서 인간의 해석과 실천방식으로 덧붙여진 613 개에 이르는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접근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요약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긍정적인 요약을 사용해서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질문에 답하셨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익숙해 있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쓰고 있는 듯 하다.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고 황제는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다. 쉘마로 알려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고백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나 그들의 가치들을 받아주지 않는 문화와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 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최선의 믿음이였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첫 네 개의 계명을 다 아우르는 것이다(출 20:3-12 을 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구된 것들은 한 마디로 인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다: 마음, 목숨(영혼), 뜻, 힘. (서구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구분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으나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분석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이다: 역자 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기 (12:3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합치셨다. 예수께서 이름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은 또한 십계명에서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여섯 개의 계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출 20:12-17).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이웃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답변에 완전히 동의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율법 교사는 예수께서 막 7:1-23 절에서 가르치셨던 교훈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따라 세웠던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의 명령들을 왜곡했던 것을 지적하셨다. 그들은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똑 같은 손으로 그들은 돈을 불의하게 벌어들였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재해석 했고 부모님께 드릴 공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처럼 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계명을 어겼다. 이 만남 속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온 누가복음 10:25-37 절의 이야기다. 누가의 기록에서 그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눅 10:29)이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반응해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구약적 개념을 완전히 발전시키셨다. 즉 ‘동포’ 혹은 ‘가까이 사는 사람’(레 19:18)의 개념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확장시키셨다.

“ 멀지 않은 ” 하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은(12:32-34)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반복하면서 그 두 계명들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추가하였다. 이

남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큰 통찰력과 인식을 보여주었다.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하셨다. 하지만 그는 전체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칭찬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마가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뒤 갑자기 이 부분을 끝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만남에 대한 좀 더 큰 배경에서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이 질문자가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의 연속선 상에 있다. 마가는 물론 이 질문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질문자도 그런 의도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가 예수께서 축복과 함께 직선적인 가르침을 주셨을 때 깊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떠난 것 같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성경적인 법에 관한 고등 관점과 율법 교사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남자는 아마도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주요 대표자들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반대로 그에게 축복과 함께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당신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잘 깨달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는 않았다.

우리가 이 남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제자들 스스로도 아직 예수께 차려 주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율법사와의 이 대화는 십자가 전 마지막 동안에 있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의 하나님 왕국에 대한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막 그들 앞에서 죽음에 내어지는 순간이었다.

적용 및 실천

우리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마가가 1 세기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의 가치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 받는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생동적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적당히 파묻혀 세상의 물살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이 항상 따른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는다.

질문

1.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가?
2.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3.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4. 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가?
5.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사상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펼쳐졌다. 이 통치는 장차 올 더 좋은 시대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제이다. 마가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온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적 사역을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 자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로 제시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그것이 존재함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요구로 남아 있다 (막 10:21).

사례연구

밤 늦은 시간에 당신의 전화벨이 울린다. 옆 집에 사는 소녀가 전화를 한 것이다. 그녀가 말한다, "아빠가 굉장히 와가 나서 온 가족이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1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14:1-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마가복음 14:1-9</p>	<p>학습주제</p> <p>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다가올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칭찬하셨다.</p> <p>탐구질문</p> <p>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인가?</p> <p>학습목표</p> <p>베다니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살펴본다.</p>

들어가기

예수님은 베다니의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보다 더 분명한 요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부터 그녀의 행동을 변호하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선물을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어네스트 에반스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선물을 주었다. 그는 자그마한 농부이자, 가구제작자였으며, 알칸사스에 있는 우리 낙농 농장 근처에 살던 독실한 나사렛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내가 열일곱 살로 이제 막 사역에 들어섰을 때에 자기를 보러오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책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맥라렌의 거룩한 성경의 박람회라는 16 권으로 된 책 한질이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이 책들을 좋아하지만, 자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게 될 것이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그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 책들을 훑어보고는 옷장 안에 넣어두었다.

대략 3년이 지난 뒤에, 나는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에서 첫 번째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도들은 여름 부흥회를 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었고, 목사는 늘 설교를 하였다. 나는 여섯 번의 설교를 하였다. 나는 옷장 안에 있는 책들을 기억하였다. 알렉산더 맥라렌이 다시 살아났다. 게다가 나는 성경에 대한 경외심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가운데 한사람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었다. 어네스트 에반스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줌으로써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 긴장감이 가득했던 한 주간에 있었던 극진한 선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극진한 선물로 자신을 경배한 베다니의 여인을 축복하였다. 이 여인의 선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잘 측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약 없는 사랑 (14:1-3)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물리는 것과 예수님의 유명세로 인하여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역공의 좋은 기회와 로마 정부로부터 폭동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치에 처하였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있었다. 이 작은 마을은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 동부 능선에서 1 마일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곳에

살았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여인은 아마도 마리아였을 것이다(요 12:1 절을 보라).

예수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는 몇일 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받았던 칭송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의 증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곧 죽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고 우리처럼 아픔, 고통, 죽음의 공포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혼자이셨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당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베다니의 여인은 예수님이 사역과 돌봄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식하고 나타냈다. 그녀는 또한 아마도 의도적으로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선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전심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지원, 존경과 존중이 필요한 존귀한 손님으로 대하였다.

그 여인의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유다의 동맹이라는 배반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음모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베푼 친절과 감사의 유일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여인이 행한 기름부음은 그들이 행한 어두침침한 배경과는 대조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귀중하고 값비싼 선물을 드렸다. 나드처럼 인도에 뿌리를 둔 향유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가족의 상속 재산이었다.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의 일 년 품삯과 비슷하였다.

이 여인은 헌신과 감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받아왔던 대중들의 환호를 즐기면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하여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사랑은 제한이 없었고, 그녀가 드린 선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예는 준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인도한다.

비현실성의 현실성 (14:4-7)

나드향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제자들은 냉정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그들은 최소한 그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고 불평하였다. 그 여인의 선물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는 타당한 질문처럼 보인다. 그들의 관점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전통과 성경에 기반을 둔 그들의 논점에는 근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되는 것이었다(신명기 15:1-11 절을 보라).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¹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 여인을 변호하였다. 그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좋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유용한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신명기 15:11 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 되었다. 매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긍휼을 베푸셨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병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위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5:40).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극진하게 사랑할 기회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 직업, 교육, 그리고 건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처럼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유혹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비실용적인 선물처럼 보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 여인 혼자 예수님의 빈곤을 인식하고 그에게 기름부음으로써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임을 나타낸다. 그 여인이 다른 어떤 남자들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긴박한 상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른다.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선물을 받아들였고, 이 기름부음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의미를 깊게 하였다.

베다니 여인의 이 극진한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가가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선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었다. 죄인은 죽은 후에도 기름 바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기회가 많지 않을 때 죽은 자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다른 의무들은 다음 기회가 생길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은 죽을 만큼 좋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녀가 보여준 예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실용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함을 기억하게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14:8-9)

예수님은 또한 그 여인과 그녀의 선물에 대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말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면, 그녀가 언니인 마르다에 비하여 조금 덜 실용적이었음을 어디에선가 배웠을 것이다(눅 10:38-42 절을 보라). 요한복음 12:1-8 절에 보면, 마르다는 저녁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마르다는 다시 실용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녀를 축복하였다.

예수님은 베다니 여인이 준 선물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은사도 인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 처럼 식탁 시중을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식탁을 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식탁에 놓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 주라고 요청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가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지만, 뭔가는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일 때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바꾸셨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였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녀는 유대 문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모두 뭔가는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의 행위를 삶을 변화시키는 선물로 바꾸실 수 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적용 및 실천

외부 관찰자들은 오늘 성경공부 시간에서 나눈 사랑의 선물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선생님들은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수업을 인도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과 교회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준비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늘 본다. 다른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소명과 사역을 인도해 나간다.

이런 일들이 화려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런 교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질적 수준에 심오한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시간과 자원을 나타낸다. 베다니 여인의 화려한 선물은 예수님을 축복했고 영원히 기억되고 용기를 주는 예가 되었다.

어네스트 에반스의 선물은 나의 인생과 사역을 바꾸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분을 경배하는 모든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질문

1. 베다니 여인의 사례는 당신이 극진하게 주는 것에 어떻게 용기를 주는가?
2. 기독교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우리 가운데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계산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참고)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유월절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1 세기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사용하면서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 이집트에서의 유월절 밤을 지키는 예식을 지켰었다. 7 일간의 무교절이 포함된 유월절 기간에는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압도하였다. 85,000 에서 10 만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6 만에서 12 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에 넘쳐났다. 종교적이고 국가적 열정이 뜨거웠다. 유월절의 잠재적 폭동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로마 총독은 추가 병력을 파견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던 자기의 집무실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것이다.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 모두 유월절 기간에 뜻하지 않은 분열을 피하기 위해 공조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열이 일어났다.²

사례 연구

당신은 살기 위해 집안 청소를 하는 여인을 알게 되었다. 경기 침체 기간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모두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립학교 교사인 남편은 이후에 장애가 되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마저 지불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범지역에 있는 형편없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빈곤으로 인해 붕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수님에게 극진하게 드리는 것이 당신이 이 여인과 그녀의 필요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¹ 윌리엄 래인의 마가와 함께하는 복음, 신약의 새로운 국제 해석(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윌리엄 어드만 출판사, 1974), 493-495.

² 데이비드 갈랜드의 마가, NIV 적용 주석(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존더반 출판사, 1996), 513-514.

12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마가복음 14:10-11, 17-21, 41-5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마가복음 3:14-19a, 14:1-2, 10-11, 17-21, 32-50</p>	<p>학습주제</p> <p>유다는 자신을 선택해주고 자신이 수많은 시간동안 함께 여행했던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였다.</p> <p>탐구질문</p> <p>그게 나인가?</p> <p>학습목표</p> <p>예수님의 행동과 유다의 행동을 대조하여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그게 나인가?"</p>

들어가기

예수님과 여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수많은 가르침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예수님이 5,000 명을 먹였을 때, 거기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라.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상상해 보라. 1 세기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앉아서, 인간이 행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예수님께서 사회의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기쁨과 구원을 제일 처음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상상해 보라.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배신하고 적의 손에 넘겨 준 바로 그 제자이고 동료이다.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궤도에 놓이게 된 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탐구해야 할 더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와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리라.

내 생각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이기적인 동기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나인가?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나인가? 그게 나인가?

내부로부터의 배신 (14:10-11)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동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내용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계획에 협조한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유다의 동기에 대한 또 다른 암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과 매우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제자 가운데 어떤 이가 매우 화가 나서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1 과의 14:4-5 절을 보고 마태복음 26:8-9 절을 보라). 논쟁의 주된 요점은 향유의 가치를 넘어서 그것을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좀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비록 유다의 배신행위가 요한복음 12:1-8 에서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향유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던 사람이 유다였다고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다에 대하여 재빠르게 알아차린다. 요한은 유다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그는 도둑이었으며 자신이 맡고 있던 제자들의 공동지갑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훔쳤다고 말해준다.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함께 발생한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욕심 많은 도둑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자신의 주인을 배신한 유다의 동기는 정말로 단순한 욕심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마치 유다의 관심이 너무나 일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오게 될 영원한 부유함과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은 새롭고 근본적인, 즉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게 될 것을 가르쳤다. 유다는 여전히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 땅에서의 왕국이 세워질 때 확실하게 오게 될 부유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을 때 완전히 환멸하게 되었던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유다의 행위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6:9-10 절에서 한 단호한 경고의 예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시는 것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유다가 오로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큰 그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유다가 자신의 자그마한 죄로 인하여 구원자이고 주님이신 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멀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자.

희생자가 아니라 예언자 (14:17-21)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유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경비병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 분은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권세자들에게 넘겨져서 로마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망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예수님이 친한 동료인 “열 둘 중의 하나”(14:20)에 의해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고대 유대 문화에서 가장 친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같이 둘러 앉아 식사하기; 함께, 기도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친근함과 믿음을 나누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고,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로마는 완전히 패배하고;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하신 말씀은 유다를 흔들며 돌아오게 할 뜻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14:21)라고 기록되었지, 유다가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라. 유다 자신의 굳어진 마음 이외에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강요한 것은 없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했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불행이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것과 그에 따른 결과에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신과 내버림 (14:41-50)

다음으로 마가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야기로 급하게 전환을 하고 있다(14:22-25). 시편을 노래하고 난 후에(시편 115-118 편 전부 혹은 일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 산으로 향하였다(마 14:26).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였다(14:27-30). 예수님은 스가랴 13:7 절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내버리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거부했고,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알려줌으로써 제자들의 거부를 되받아쳤다.

비록 제자들이 자신들의 메시아와 함께 감옥에 가거나 혹은 죽을 만큼의 용기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만큼 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교회에게 교훈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넘기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번씩이나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세 번째로 일어난 마지막에는 이미 동산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었다.

14:43 절에서 사용된 마가복음의 특징인 “곧”이라는 말은 이야기를 긴급하게 전개시켜 나가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 동안에 유다가 무장한 무리와 함께 도착했음을 말해준다. 예수님이 아직도 자신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다는 전형적인 특별히 제자와 스승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맞춤의 인사로 예수님께 접근하였다. 그러나 친밀함과 존경의 신호가 역설적이게도 유다가 삼년 이상이나 가까웠던 동료로 향한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은 체포되었지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한 제자가 자신들의 스승과 자신들의 이유로 인해 싸움을 시작해야 할 적당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짧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우리는 단지 “결에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만 듣게 된다(막 14:47).

예수님은 자신의 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을 했다. 예수님이 매일 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밤중에 검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잡으러 왔을까? 자신의 마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것임을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14:36).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14:49).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싸워야했는데,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체포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없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냉혹하고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신에 덧붙여서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버렸다.

51-52 절의 말씀을 보면 좀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이 구절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내버렸는지를 조명하여 준다. “한 청년”이 누구였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옷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발가벗은 채로 발견되는 창피함을

감수하려 한 것이다. 이 구절은 자신들의 주님을 포기해버린 모든 제자들의 창피함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들은 정말로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대로 하였다(14:27).

적용 및 실천

유다는 정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몇 가지 요소들이 유다의 동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은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계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가치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목적과 가치가 주님의 것들과 어울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다.

질문

1. 당신은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배신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2.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받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예수님을 내버린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
4.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까?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가?

(참고)

유다 이스카리옷 : 개요

유다는 이름의 적당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성경에서 애매한 인물이다.

이스카리옷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학자들은 카리옷의 아들이라는 뜻이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직 유다만이 열 두 제자가운데 유일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정확한 이유는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욕심에 덧붙여서(막 14:10-11 절을 보라), 성경학자들은 다른 두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은 파멸되어야 한다고 용납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유다가 "회개하여"(마 27:3; "양심의 가책을 느껴"NASB)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다는 나중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마 27:5). 그리고 그의 시신은 "피발"(마 27:8)이라고 알려진 곳에 묻혔다.

유다에게서 배우는 교훈

-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치를 구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다.
-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살핀다. 이러한 갈망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본다.
-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당신이 가장 포기하고 싶다고 유혹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한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다.

¹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인용된 모든 성경은 개역개정에서 인용한 것이다.

13	가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가복음 15:40-16: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가복음 15:40-16:8</p>	<p>학습주제 여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례, 그리고 빈 무덤에 있었다.</p> <p>탐구질문 당신이라면 거기에 있었을까?</p> <p>학습목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례, 그리고 빈 무덤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데 있다.</p>

들어가기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추종자들의 몇몇은 여인들이었다. 이 여인들 가운데 몇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자라면서 나는 히-맨에 대한 커다란 동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 만화 주인공이다. 그가 나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그를 동경했다. 우리는 함께 근육을 뭉쳐서 짐승 같은 힘으로 악마의 세력을 잘 무찌를 수 있었다. 내가 동경했던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 히-맨과 함께 몇 명의 실제 사람들도 있었다. 록키, 맥가이버, 인디애나 존스, 람보, 그리고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함께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웅들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강인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또 이 세상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웅들이 악당들에게 정의로 심판하는 것을 즐겨 보면서, 한편으론 한 여인이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강인함의 이익을 보기도 했다. 싱글맘으로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한 여인의 완고한 신념에서 오는 조용한 강인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7 번씩 70 번이나 용서했던 한 여인을 목격하기도 했다. 나의 어머니는 경찰이다. 어머니가 내 일생동안 보여주셨던 강인함의 절반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강인함과 신실함을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나의 어머니, 아내, 딸. 나는 우리 남자들을 우리 자신만으로 남겨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인들은 심오한 방식으로 역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도 진실이었다.

바라보기: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사렛 예수 (15:40-47)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막 15:25).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다(15:26). 예수님은 아침을 자신의 양쪽에서 처형된 두 강도들 사이에서 보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는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자신과 함께 처형당했던 두 강도들에게서도 조롱과 놀림을 당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은 정오에서 오후 3 시까지 계속된 땅을 뒤덮은 물리적 어두움과 일치했다(15:33). 이 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음을 느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비록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가는 역설적이게도 백부장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을 강조하고 있다(15:39).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나? 바로 몇 시간 전에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자신들의 주를 위해 죽겠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멀리서 이 비참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이 여인들이 복음서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막 15:41; 눅 8:2-3).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개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게다가 조금 혹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희생적인 공헌을 하였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잊혀 졌지만, 그들이 끼친 영향은 감춰지거나 혹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곁으로는 주변에 머문 여인들이 종국에는 주변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이 죽으실 때에 곁에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주춤하지 않았다. 마음은 비통하였지만 여인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바라보고 져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몇 가지 문제가 처리되어야 했다. 비록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장면은 끝났지만, 여인들은 이 장면에서 멀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남아 있었고, 마가는 아리마대의 요셉이 자신이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묻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해준다. 그는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놓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굴러 막았다.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제자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요한과 동생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요셉이 돌을 굴러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마지막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찾아보기: 그는 부활하셨다 (16:1-8)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안식일 후에 무덤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누가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줄까 하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예상치 않은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던 계획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유일한 분이 살아나셨다.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은” “청년”이 여인들을 놀라게 하였고, 여인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알려 주었다.

그래서 시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특별히 여인들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막 14:28). 이 사실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요한복음에서 확인이 된다(요 21 장).

사실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가서 말하는 첫 번째 존재라는 중요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비록 21 세기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어렵지만, 고대 유대 문화의 대부분 시기에는 한 여인 또는 여인들의 증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믿기지 않는 일을 알려주는 것에 더하여, 그 여인들의 증언도 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심이 되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준다(눅 24:8-11).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에 관한 다른 관점은, 이것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첫 번째로 섬기게 된 사람들이 여인이었고, 여인들의 목격과 증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몇몇 독자들에게는 복음서에 있는 부활 사건이 의심스럽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실재로 이 이야기에 신뢰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초대 교회가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첫 번째 증인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기록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을 만났다.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의미를 비극적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가 보여준 반응들로 볼 때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다고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레위, 무덤가의 귀신들린 자, 야이로와 12 년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율법교사, 베다니의 여인. 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례,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신실하게 있었던 여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 권세는 살아있다.

적용 및 실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여전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베드로처럼 이해와 헌신은 보잘것없는데 말하기에는 빠르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믿음은 이 여인들의 주제넘지 않으면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을 나타내는가? 내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은 이 둘 사이의 어디쯤 인 것 같다. 이 여인들의 신실함은 어떠한 어둠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감탄, 기쁨, 그리고 희망으로 보상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있어야 한다.

질문

1.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여인들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려운 시기에 여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신실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이 여인들의 확고한 신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마가복음 16:8 절에서는 이 여인들이 “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생각하는가?

4. 이번 과목을 되돌아볼 때, 마가복음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구별되는가? 등장인물 모두에 대한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해당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

(참고)

예배에서의 여인들

유대인의 예배를 보면 예수님 당시와 이전의 여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유대 여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여인들을 위한 특별한 뜰이 성전 안에 지정되어 있었고,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너머의 지역은 여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회당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도 여인들에게는 몇 가지 제한이 있었다. 사실 지역 공동체 안에 회당을 세우려면 적어도 13 세 이상이 되는 10 명의 남자들이 필요했다. 그 지역에 나이가 충분한 8 명의 남자와 50 명의 여자가 있어도 회당은 세울 수 없었다. 여인들은 회당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도 남자들과 분리되었고,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인 삶에서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역할도 가질 수 없었다.

갈라디아서 3:28-29

주일학교가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가 갈라디아서 3:28-29 절을 읽고 당신에게 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당신이 하는 대답은 오늘 배운 것과 관련이 있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마태복음 1:18-25</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마태복음 1:18-25</p>	<p>학습주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오셨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진술하는데 있다.</p>

들어가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목사이자 작가로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크고 작은 위기를 통과하는 많은 개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풀기 어려운 신학적 수수께끼들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매주 복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끔씩 뱃티스트웨이 출판사에 글을 쓰는 특권을 가진다. 상상해보라!

이 모든 책임들과 더불어 나는 아버지이다. 비록 내가 할 일이 많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때때로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시간을 내서 내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내 막내는 침을 흘리고 웅얼거리는 두 살배기이고, 이름은 잭이다. 잭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흙장난이다. 흙 위에 앉아서 흙을 파고 공중에 날리고 주머니 속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흙을 먹기도 한다. 어린 잭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모든 중요한 일들을 미뤄놓고 잭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흙 위에 앉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눈높이를 맞춘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흙을 파고 공중에 날린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기록한 것이다. 스스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권리가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모든 존귀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고 한다. 마태는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 1:23b). 아버지, 주님,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 질책, 웃음, 가르침, 치유, 구원, 이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혼 전에 잉태된 아이 (1:18-19)

마태는 한 구절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 것을 통해 걱정스럽고 수치스러운 예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 마태는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최신판으로 보자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에서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다”고 말한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은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맹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부모가 결혼을 준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마을의 한 여자와 결혼하길 원한다고 상상해보자. 여자의 아버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해야 한다. 그 둘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이끌려 지역 법원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받고, 서명을 한다. 여자는 이제 약혼을 하였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 남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약 1년 뒤에, 이 둘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통해 결혼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 여자는 약혼을 넘어서서 완전히 아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비록 마리아가 법적으로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둘은 아직 성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질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다. 히브리말인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인데, 기름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구약성경 시대에 몇몇 사람들, 특히 왕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 예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또는 왕이신 예수.

그래서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온 마을에 퍼진 소문의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함께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19 절은 요셉의 성격과 마리아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마리아가 겉으로 보기에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요셉은 유대 남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와 파혼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었다(마 1:19). 요셉은 마리아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요셉이 배려심이 있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영혼을 지닌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1:20-25)

요셉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셨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그녀에게 잉태된 것임을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신실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잉태하게 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다(1:21). 이 아이의 이름은 자신의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요슈아의 그리스어이다. 요슈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마태는 이것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다(1:23; 이사야 7:14). 원래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에서 적군이 왕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한 말인데, 이 말씀의 더 완전한 의미는 더 큰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이 땅의 적이나 세상의 군대로부터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우리를 죄와 반항으로 묶고 있는 영적 세력으로부터의 보증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안전과 구원의 보증이 인류에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피조물을 포로로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려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는 이런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여 행한 폭력과 인류의 모든 우상과 반항의 형상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아기이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작고 위협적이지 않게 유지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말구유 안에 영원히 가둬놓을 수 없음을 조심해야 한다. 아기는 자라서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였다. 그러나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초기 제자들이 목격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모든 악과 저항 세력에 대한 결론은 모두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은 예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가져온 죽음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벌을 받음으로써 적을 벌하셨다.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는 우리의 허약함, 질병, 죄까지도 자신이 짊어짐으로써 인류의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었다(사 53:4-5). 인류의 죄는 한사람의 의로 인해 도말되었다. 모든 인류의 반항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르게 되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21 절에서 간결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나쁜 것처럼 들리고, 그러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고뇌와 죽음을 하찮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의롭고,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고,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뇌와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는 실제로 단순히 어떤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초 이전에 존재했고, 영원한 말씀이시다(요 1:1).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요 3:16).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요 10:30).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골 1:15).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침 흘림과 웅얼거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흠에서 흠을 파기 위하여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적용 및 실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에 대한 것임을 뜻한다. 그 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우리를 강하게 무장하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 분은 부드럽게 예상치 못하게 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죄의 소름끼치는 결과를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겨우 한걸음 뛸 수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한걸음에 빈틈 전체를 채우셨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질문

1. 당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 들어오셔서 행동한 예는 무엇이 있는가?
3.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격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4. 다음의 용어들을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참고)

왜 복음서들은 다른가?

몇 가지 자세한 설명들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음속에 지녀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복음서를 각각의 용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각 복음서는 특별한 환경, 특정의 사람들, 그리고 일정한 필요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 작가가 서로 다른 것들을 강조하려는 소망으로 씌어졌다.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덧붙일 것은, 복음서들은 고도로 양식화된 문서라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작가가 특정한 이유로 인해 특정한 방법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복음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진주만 폭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네 편의 서로 다른 영화(또는 영화를 본다면)로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영화는 동일한 사건을 포함할 것이지만, 접근하는 방법, 양식, 주제, 구조, 대화, 배경, 진행 등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영화가 옳고 다른 영화들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각 영화제작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

-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기로 결정하셨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다(고후 5:19). 19 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한 말을 잊지 않도록 하자. 이 화해의 소식은 교회에게 부여된 임무이다.